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3. 27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항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장 나웅진, 사무관 김춘수, 사무관 허나운 •☎ (044)201-4328, 4335, 4333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‘대구·김해공항 시설개선 하세월’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대구·김해공항의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설 및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대구공항은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16년 12월 주차빌딩을 신설(537면 순증, 803→1,340면)하였고, ‘17년 11월에는 계류장도 확장(6→9개소)하여 더 많은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한국공항공사 주관으로 ‘대구공항 등 개발 로드맵 수립’ 용역이 곧 착수될 예정으로,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K2·대구공항이 통합이전 되기 전까지 항공수요를 적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김해공항은 ‘17년 7월 국제선 터미널 증축을 통해 연간 수용능력이 36% 증가하여, 일부 피크시간을 제외하면 혼잡상황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.
 - * ‘17.7월 터미널 증축 : 기존 터미널 약 5만㎡ 중 2만㎡ 리모델링 + 2만㎡ 증축
- 더 많은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주기장을 ‘19년 3월까지

4개소 추가하고,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빌딩 건설(1,200면 순증, 4,784→5,984면)을 상반기 착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설에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.

○ 아울러, 출발층(2층) 내 단체여객 혼잡완화를 위해 도착층(1층) 및 3층에 여행사데스크 및 키오스크를 분산배치하는 등 운영방안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.

○ 또한, 혼잡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혼잡상황이 지속 악화될 경우에는 필수여객수속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을 외부이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영남권의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서, '16년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입지로 '김해신공항'을 결정하고,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앞으로 김해신공항을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, 김해신공항 개항 전까지 기존 공항에서도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3.27, 서울경제) >

◆ “콩나물 대구·김해공항 시설개선 하세월”

- 대구공항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여 올해 여객 실적이 공항 수용한계치를 초과할 전망임에도 시설 확충은 아직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음
 - k2와 통합이전 추진 중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매몰비용 때문에 시설 확충이 늦어지고 있으나, 통합이전은 '23년 계획 기간 내 이전이 물리적 힘들 전망
- 김해공항은 4년 연속 최대 이용객 기록 갱신 중으로 이미 수용한계 초과
 - 국제선시설 확장 2단계 사업이 미확정되어 신공항 개항까지 포화상태가 계속 되므로, 부산시는 신공항 개항을 앞당기고 적정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
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허나운 사무관(☎ 044-201-43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